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제목 : 병든 자를 붙잡히 여기시는 예수님 성경: 마태복음 14장 25-36절

Tag:

25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
니

26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27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28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29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
되

30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31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32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33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
들이로소이다 하더라

34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35 그 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36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마14:25-36)

예수님은 병든자를 붙잡히 여기신다.

예수님은 할 수 있다면, 많은 사람을 고치신다.

예수님께는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다.

예수님은 병을 고치실 뿐 아니라 귀신도 내어 쫓으신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한 이유는? 자신의 자유의지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다면 질병은 잘못된 생활습관으로 인한 결과에 지나지 않는다. 잘못 할 수는 있지만, 치유를 요청하는 기도는 복음이며 복된 것이다. 기도하면서 관계가 회복된다. 예수님이 오심 자체가 관계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은총, 우리는 그 복음에 응답해야 관계가 회복됨.

왜냐면 예수님께는 귀신을 제어하실 수 있는 권능이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지만, 사실은 하나님 자신이시다. 창조주시다. 말씀으로 온 우주를 만드셨다.

성경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 등 여러 가지 호칭으로 불렀지만, 모두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낸다는 동일한 의미가 담겨있다.

다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깨달아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호칭으로 불리신 것이다.

마태복음 14장에는 세례요한이 헤롯에게 죽임을 당하는 내용이 먼저 나오고, 예수님은 그 사실을 슬퍼하시며 홀로 빈들에 거하셨다고 기록되어 있다. 예수님께서 슬퍼하신 이유는 세례요한이 정치적 메시아를 갈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야 하는데, 오히려 예수님이 자신과 같이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시길 원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백성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더 힘을 쏟으셨다. 그 천국복음이란 단순한 예언이나 설교가 아니었다. 왜냐면 예수님은 아예 이 땅에 오시면서 천국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이다. 그

증거로 예수님은 병자들을 고치셨고, 귀신을 내어 쫓으셨으며, 각종 필요한 기적들을 일으키셨다.

14장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온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계시는 빈 들로 큰 무리가 몰려 들었고,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으며, 그들 중에 병든자를 고쳐주셨다.

14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모든 병이 순식간에 나았고, 백성들은 병에서 구원을 받았다. 모든 귀신들은 즉시 쫓김을 받았고, 백성들은 귀신의 얽매임에서 벗어나 구원을 받았다.

그러자 해가 졌고, 배가 고프게 되었다. 제자들은 생각했다. 배가 고프고 해가 저물었는데 이곳은 빈 들이니 무리들을 인근 마을로 보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음식값은 각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다. 각자 인근 마을로 들어간들 오천명이 넘는 무리들이 한꺼번에 먹을 음식이 있을 리 없고, 해는 저물어 가는데 그렇다고 자기들 집에까지 굶으면서 걸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니 답이 없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이 돌아가면서 기진하지 않도록 밥을 먹여 보내야겠다고 생각하신 것이다.

(제자들의 생각-사람의 생각, 예수님의 생각-사랑하는 생각)

사람:먼저 비용 생각함. 빨리 보내야 한다고 생각함.

예수님:먼저 먹여야 한다고 생각함. 음식이 없으니 기적이 필요하다고 생각함.-기적의 요건은 필요성. 12제자가 봉사하면 식사시간은 1시간이면 넉넉할 것임. (잠실구장이 최대 3만명 수용가능)

예수님은 제자들을 명하사 먹을 것을 나누어주게 하였고, 백성들은 굶주림에서 구원받았다.

(제자들이 12명. 배불리 먹고 남은 빵 조각이 열두 바구니. 무리들은 각자 주머니에 빵을 챙겼을 것이다. 그러고도 열두 바구니가 여전히

남아있었다. -조각을 거두었다고 번역되었지만, 굳이 오천명 군중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남긴 것 내 놓으라고 했을 리 없고, 나누어 주었어도 여전히 빵이 바구니에 가득차 있었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해가 저물어가니 서둘러야 했다. 예수님과 제자들도 다음 행선지인 게네사렛 땅으로 가야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먼저 배를 타고 떠나라고 하신다음, 홀로 남아 무리들의 뒷정리를 하시면서 각자 집으로 돌아가라고 배웅하셨다.

예수님은 무리들을 다 보내신 후에 홀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고, 밤이 깊도록 산에서 홀로 계시면서 기도하셨다. 예수님은 홀로 계시면서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셨고, 그날도 산에 올라가셔서 밤새도록 기도하시기 원하셨던 것 같다. 그것이 예수님의 습의 방법이셨을 것이다.

그런데 제자들은 일찍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갈 것을 예상했으나 도무지 맞바람이 불어 배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다. 갈릴리 바다의 가로 너비는 약 12Km였다. 세로 길이는 21Km. (행선지는 우리 예배당에서 북악산까지의 거리쯤. 순풍이면 두시간, 역풍이면 곤란. 아마 해가 질 때쯤이면 동풍이 불어 빨리 가야 했을 시간이었으리라.)

-하는 수 없이 예수님은 바다를 건너 제자들에게 가셨다. 제자들은 놀랐으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안심시키셨다.

이때 베드로는 자기도 예수님처럼 바다위를 걷고 싶었다. 매우 큰 믿음의 소유자다. 다른 제자들은 무서워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 역시 수제자라 다르다.

그러나 것처럼 용감했던 베드로도 바람이 부는 것을 보고 겁이 덜컥 났다. 베드로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겁이 많다. 하나님은 우리가 겁이 많다는 것을 아신다.

우리는 조그만 병에 걸려도 겁을 낸다. 위기감을 느낀다. 건강할 때

는 병원이 있으니 염려 없다고 생각하고, 요즘은 의학도 발달했으니 용감해진다. 실비보험을 들었으니 안심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덜컥 병에 걸리면 생각이 달라진다. 의사도 믿기 힘들어진다. 주사만 맞아도 아파서 심장이 쪼그라든다.

인간은 나약한 존재다. 실제로 아주 별것 아닌 병 때문에 죽기도 한다. 의학이 발달해서 어지간한 병을 잘 고치기도 하지만, 여전히 오진도 많고, 돕는 간호사나 의료진들도 실수가 많으며, 장비들이 첨단이라고 하나 오동작이나 오판도 많다. 어쩔 수 없다. 그러니 의사들과 간호사들과 장비들의 오작동 방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는 참된 의사이신 예수님께 기도해야 한다.

의학이 발달했어도, 여전히 사람들은 죄를 짓고, 경건을 등한시 한다. 그래서 병에 걸리는 사람이 많다. 병에 걸리면 겁에 질리고 두려워 편다. 나약한 인간의 모습은 세월이 지나도 여전히하다.

여전히 요즘 의사들도 술담배 먹지 말고 경건한 생활을 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아무리 의술이 좋아도 불경건을 이길 수 있는 의사는 없다. 의사가 시키는대로 다 해야 하는데, 의사마다 제각각이다. 오직 참된 의사는 예수님이시다.

다행히 예수님은 병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예수님은 병든자를 불쌍히 여기신다.

얼마나 감사한가?

우리는 경건하게 살면서 참된 의사이신 예수님께 기도해야 한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를 기도해야 한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는 병에서 구원받아야 한다.

32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예수님을 모시는 가정, 일터)

33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

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예수님의 정체성이 곧 기적의 근원)

34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35 그 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36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찬양예배>

제목 : 과학시대의 창조론2

성경: 로마서 8장 19-25절

Tag:

19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20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21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 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22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23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 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24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매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25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롬8:19-25)

바르트-이 세상의 지식은 전도되어 있다.

전도; 차례, 위치, 이치, 가치관 따위가 뒤바뀌어 원래와 달리 거꾸로 됨. 잘못 이해하고 있음.

-과학적 무신론은 전도된 지식이다. 그 뿌리는 인간의 죄성에 있다.

-객관적 지식은 성령의 도구이다.

-오늘의 무신론 중에서 가장 심각한 무신론은 과학적 무신론이다.

(호킹과 도킨스가 대표적 인물)

*지적 설계이론

-고물야적장과 보잉747;이렇게 복잡한 비행기가 고물야적장에서 저

절로 만들어질 리가 없다.

-도킨스(생물학자);생명체 자체가 스스로를 진화시켰다. 생명체는 스스로를 끊임없이 진화시키는 능력이 그 속에 이미 존재해 있다. 무생물은 진화하지 않는다. 무생물과 생물을 비교하는 것은 오류라 주장함.

.돌연변이와 자연선택을 주장함.

.인류의 탄생은 어마어마한 우연이지만, 이것은 돌연변이와 자연선택의 결과다. 과학이 모두 설명할 수 있다. (설명될 수 있다고 진리는 아닐진데...)

.진화는 오메가포인트가 없다. (진화적 창조론 부정)

.작은 변화에 의한 누적이 생명의 신비를 푸는 열쇠다.

-그러나 생명 이전에는 무생물이 있지 않는가? 무생물에도 돌연변이와 자연선택이 가능한가?

-생명체의 탄생은 어마어마한 우연의 조건이 필요함.

-빅뱅부터 생명체의 탄생까지는 100억년 이상의 진화가 필요했었다. 그런데 이 진화에는 생명도 돌연변이도 생존경쟁을 위한 자연선택의 과정도 없었다. 지구의 공전만도 보잉747보다 더 엄청난 신비일 뿐. 이 신비에 진화론이 들어갈 장소는 없다.

*인간 중심적 우주원리와 하나님의 계획(브랜든 카터1974)

-인간 중심의 우주원리;우주원리는 인류의 탄생을 향해 정향되어 있다. 그 방향을 정한 존재(하나님)가 필수적.

-우주상수;핵력=0.007이어야만 함. 강한 결합상수. 약한 미세상수. 전자기 미세 구조 상수. 중력 미세 구조 상수.

핵력의 미세차이는 생명체의 발생 유무 결정.

강한 결합 상수의 미세차이는 수소를 기초한 많은 원소의 발생에 기여.

약한 미세상수는 별의 형성에 기여. 별이 없었다면 탄소, 질소, 산소도 없었음.

전자기 미세 구조 상수의 미세차이는 행성의 온도 결정.

중력 미세 구조 상수는 별들과 행성들이 형성되지 못함.

-이 모든 연구는 유신론자나 무신론자 모두 동의함.

-DNA와 RNA와 단백질. 난자의 구조는 DNA보다 훨씬 복잡함.

*정교하게 조율된 우주

-태양은 수소핵발전소. 인류는 궁극에 수소핵발전이 가능하게 될 것인가?

-인간의 세포와 DNA는 태양의 수소핵발전소와 비교할 때 더 정교할까 덜정교할까?

-인간은 이미 세포 속에 어마어마한 정보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아직도 수소핵발전소를 만들지 못하고 있을까?

-우주의 존재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는 거울이자 근거이다.

-안토니 플루라는 악명높은 무신론자도 정교하게 조율된 우주 앞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함. 그의 회심은 부흥회가 아닌 과학이었음.

*하나님의 창조를 암시하는 캄브리아기의 생명체 대폭발

-캄브리아기(5억4200만년전~4억8830만년전)에 출현한 다양한 동물의 화석. 갑작스런 출현은 다윈주의자들에게 심각한 도전이 됨.

-실제 기간은 그 중 600~1000만년 동안임.

-접눈과 카메라눈이 동시에 출현함.

-단속평형설(골드):짧은 기간에 급격히 일어나고, 긴 기간동안 변화가 없음.

-모리스(캠브리지 고생물학자);진화는 일정한 방향으로 수렴하고 있다. 경로는 많지만 다다르는 종착지는 한정되어 있다. 수많은 도전들에 대응해 거의 정확한 해답을 향해 가는 특이한 경향이 있음.

-결국 빠른 진화가 바른 방향으로의 진화가 확인됨. (도킨스는 망함)

*‘자연의 역사’의 주이신 하나님과 다양한 다른 주체들

-하나님은 자연의 역사의 느린 과정을 마냥 기다리시는 분이신가?

-하나님은 자유의 신. 자연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들의 자유를 보장하시는 분.(심지어 마귀의 자유까지) 그 모든 존재의 주체성을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진정한 주체이심.

-피조물의 비극과 하나님의 구원사역;진화의 희생물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 이 비극의 배후에 있는 마귀.

-진화는 비싼 값을 치루는 사업.

-우주적 그리스도론과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문제에 대한 궁극적 답.

-도킨스는 자연주체만 인정하는 오류를 범함.

*하나님의 계속적 창조

-신다윈주의 이론으로는 해명되지 않는 생명체의 복잡성

-분자생물학의 발전;단백질 간의 바른 연결이 우연히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단백질 분자에서 아미노산의 연결은 신다윈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

